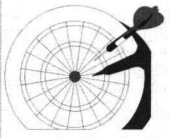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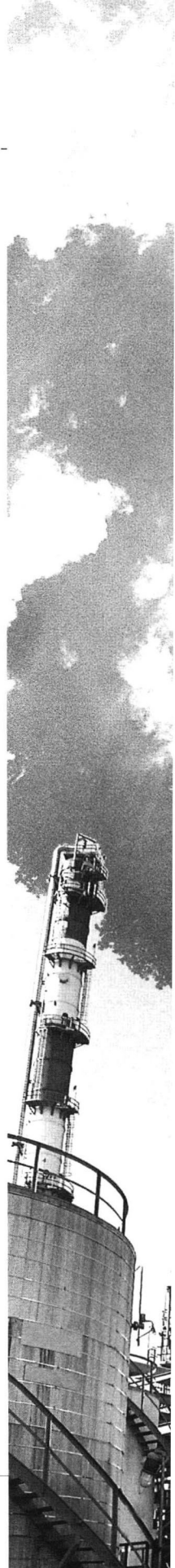
## 강원도 프로판 사업자 해외Workshop 실시

한국LPG공업협회 강원지회  
정국진사무국장

- 일 시: 2006. 11. 15(수)~18(토)
- 목 적: 업계친목도모 및 환경의식 고취
- 참가자: 강원지역 프로판사업자 23명(부부동반)
- 목적지: 일본 도야마 알펜루트



▲강원지역 프로판사업자들이 알펜루트 등정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강원도 프로판 사업자들은 업계현안을 토의하고 업계 발전을 위하여 제도나 정책건의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 강원도지회장(유 수륜)의 주선과 현 지회장(안 정신)의 준비로 11.15(수)일 부터 18(토)일까지 부부동반 일정으로 일본의 북륙지역인 도야마현의 알펜루트를 등정하였다.

이곳은 일본의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해발3015미터의 고봉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만년설과 50년대 일본의 극심한 전기난을 극복하기위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구로베댐(저수량2억톤, 연간230만 KW전기생산)이 있는 곳으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겸손한 도전을 보여주는 곳으로 매우 인상이 깊었다.

우리 일행은 해발 2,350미터에서 지구환경보존과 대기개선에 있어서 청정연료인LPG가 그 중심역할을 하여주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많은 보급확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청정연료가 되어 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등정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일본은 부자의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소박하면서 절제된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보편화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미 일본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동경의 경우 경유차의 도시 진입을 막고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도 현재 대기 수준이 일본보다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정부나 국민모두 LPG차의 보급확대로 대기개선에 관심을 모으지 않으면 결국 국제사회에 국민세금으로 많은 환경페널티를 물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기되었다.

